



베르사유 궁전 속의 데카르트

「프랑스어권의 문화와 예술」과 「과학사」 강의페어링

행정학과 201421822 정다겸

송하석교수님 지도

목적

‘문화’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나라는 프랑스이다. 자신들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프랑스가 이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 강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뿐만이 아니다. 프랑스는 깊은 학문적 전통을 가진 지성 강국이기도 하다. 프랑스가 문화적,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 문화의 저력이 프랑스의 지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는 철학자 데카르트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 과학 혁명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프랑스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성사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명언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데카르트의 사상은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철학적 사상이 17세기 프랑스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보았고, 여기서 페어링 아이디어를 얻었다.

‘프랑스어권의 문화와 예술’에서의 강의페어링

17세기 프랑스는 문화사적으로 형식의 정연한 통일과 조화, 명확한 표현, 형식과 내용의 균형 등을 중시한 고전주의와, 이에 비해 자유분방함, 움직임, 찰나적 아름다움을 중시한 바로크양식이 뒤섞여 공존하던 시기이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이다. 방대한 크기를 뽐내는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의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과학사’에서의 강의페어링

16세기에 시작된 근대 과학 혁명으로 세계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기계이며 물리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과적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에 등장한 데카르트는 이원론을 통해 목적론과 기계론의 화해를 시도했고, 방법론적 회의를 통해 인간 의식의 근본 원리로서 ‘사유하는 자아’를 확립했다.



강의페어링 융합 사례

1. 데카르트의 이원론

베르사유 궁전의 서쪽에 위치한 정원은 거대한 우주의 축소판이다. 반면 동쪽에 위치한 베르사유 시는 인간 사회다. 여기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드러난다. 그는 인간을 육체적인 ‘나’와 정신적인 ‘나’라는 두 존재로 분리시켰다. 정신은 ‘정신-주체-관찰자-신’인 반면, 육체는 ‘물질-객체-관찰대상-자연’이라는 것이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서쪽의 정원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기계론적 사회인 반면, 동쪽의 베르사유 시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목적론적 사회라 할 수 있다. 베르사유 궁전은 전자와 후자를 분리시키는 기준이 되는 존재, 즉 인간의 이성이다. 이 베르사유 궁전의 주인은 현존하는 인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우주와 자연을 상징하는 정원을 지배하는 태양-왕이자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인간-왕이다. 이처럼 베르사유 궁전은 두 얼굴을 지닌 야누스처럼 정원 쪽과 도시 쪽의 두 얼굴이 하나로 맞붙어 있는 형상이다.

2.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중세의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근대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의 이행을 이끌었다.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정원 건축을 통해 인간은 자연을 힘없이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능동적으로 바꾸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했다. 아무것도 없던 늪지대와 벌판에 흙을 퍼붓고 물을 끌어대고 험클어진 숲을 인위적으로 다듬어 거대한 연못들과 수많은 분수가 있는 완벽한 정원이 조성되었다. 무질서하고 황량한 자연에서 거대한 질서와 조화의 세계가 탄생한 것이다. 외르 강에서 물을 끌어대 대운하를 건설하고, 이 운하에서 궁전을 향해 동쪽으로 길게 뻗은 선을 중심축으로 거대한 정원이 조성되었다. 타원과 삼각형 모양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킨 기하학적인 정원의 모습은 자연을 지배하는 인위적인 힘을 드러내고 있다. 베르사유 궁전 내부에서도 데카르트의 인간 중심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베르사유 실내 장식의 주제는 신화가 아닌 역사 위주였다. 즉 신 대신 인간인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근대주의가 승리함으로써 고대 신화의 비유에 의존한 상징체계보다는 현실 세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이 표출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결론

데카르트는 인간이란 사고하는 능력, 즉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모든 것들과 구분되는 의심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이라 생각한다.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루이 14세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아우르는 지배력을 갖길 원하였고, 데카르트의 인간 중심 사상은 그의 절대적인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었다. 휴먼 스케일을 넘어선 극단적으로 인위적이고 장식적인 베르사유의 공간 구성은 자연을 인간의 통치 아래로 복속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로 보인다. 베르사유 궁전 정원은 기하학적인 무늬와 정확한 좌우 대칭의 구조를 통해 인위적인 힘으로 자연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를 통해 베르사유 궁전은 인간과 자연을 모두 지배하려는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을 잘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바로크적 아름다움도 겸비한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에서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네이버 지식백과] 16~18세기 과학혁명 : 근대과학의 탄생 (과학기술 발전의 발자취, 2009. 12. 31., 자유아카데미)
- 2.[네이버 지식백과] 바로크와 고전주의 (바로크, 2004. 11. 30., ㈜살림출판사)
- 3.[네이버 지식백과] 데카르트 [Descartes, René] (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 4.이창순, 『프랑스 문화의 이해』 학문사, 2002, 458쪽 5..이영림, 『루이 14세는 없다』, 푸른역사, 2009, 248쪽